

## 아시아 공동체론 소감문

금융공학부 이호언

정말 부족했던 제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이번 아시아 공동체론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가게 되었다. 장학금, 성적들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수확은 국내외의 훌륭한 스승들로부터 배운 지식과 지혜들이었다.

찾아오신 강연자 분들께서는 우리가 평소에 모를 법한 내용들을 훌륭한 강의력으로 학생들에게 설명하셨다. 학생들의 질문 또한 진지하게 경청해주셨다. 무엇보다도 강연자 분들께서 수업 준비를 많이 해오셨고, 학생들 또한 이런 모습에 걸맞게 노력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강의가 좋았지만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강의는 미야지마 선생님의 동북아 유교에 대한 강의였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려울 법한 내용을 직접 우리나라말로 설명해주셨다. 그 내용의 구성이나 전개 과정도 감탄이 나올 정도여서 가장 몰입해서 들을 수 있었던 강의였다. 가장 난해했던 강의는 공계규 박사님의 강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숨만 쉬고 멍한 상태로 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우선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어려운 용어를 영어로 들었기에 더욱 그러했고, PPT나 강의 구성에 있어서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가 많았다. 다행히 녹음한 파일을 토대로 레포트를 작성하긴 했지만, 이 당시에도 매우 힘들게 레포트를 썼던 기억이 난다.

한일 경제협력 포럼 또한 기억에 많이 남는다. 내용이 정말 신선했는데, 가령 최희갑 교수님의 우리나라 경제와 조직구조의 관계라는 독특한 관점, 조윤제 교수님의 한국 경제가 일본경제의 10년 전 모습과 닮아간다는 내용과 같은 그동안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었다. 일본 강연자 분들로부터는 일본 경제가 처한 현실과 이를 아베노믹스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할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점은 포럼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 포럼을 계기로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포럼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인들만 참여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 판단한다.

아시아 공동체론의 수업 평가 방법에서는 호불호가 갈릴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내게는 수업의 평가방법이 학생들의 유인을 이끌어 낼 획기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학생들의 집중력을 가장 높이는 방법은 퀴즈를 자주 보거나, 웹과제와 같이 학기 내내 틈틈이 공부해야하는 의무감을 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수업의 레포트 과제는 강연자 분들의 수업을 집중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또한 레포트를 쓰며 강연자 분들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었고, 이에 쓰는 시간을 합치면 중간이나 기말고사를 보는 것과 비슷한 시간을 활용해야 했다는 점에서 레포트 성적 평가법은 매우 적절했다고 판단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고질병인 '질문 없음'이라는 문제도 질문 점수라는 평가법으로 해결했다는 점 또한 매우 훌륭한 방식이라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대학 생활 중 유일하게 수업을 잘 들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업, 이라는 인식도 학생들에게 큰 유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수업은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극대화하는 매우 실험적이고 의미있는 수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쉬웠던 점도 분명 있었다. 학우들이 레포트 제출이 없는 날에는 1교시만 듣고 쉬는 시간에 모두 빠져나가거나 아예 집중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다. 레포트를 쓰지 않으면

들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박혀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부분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이 따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강연자 선정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국적의 분들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는 아시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아시아내 다른 국가들을 더 많이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쉽지는 않겠지만 탈북자 분들을 초빙해 북한에 대한 상황을 듣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세안 국가와 관련된 강연자 분들도 모셨으면 한다. 또한 중국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 맞춰 중국 강연자 분들도 더 초청해 강의에 있어서 국적의 비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다.